

독재정권 비극의 역사 최·루·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음달까지 광주경찰 5000발·전남경찰 2만발 폐기
운영지침 따라 기동부대·경찰서 최소 필요량만 남겨

지난해 개봉한 영화 '1987'에서 이 한 열 열사를 숨지게 한 도구로, 반독재 민주화 시위 등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명을 떨쳤던 최루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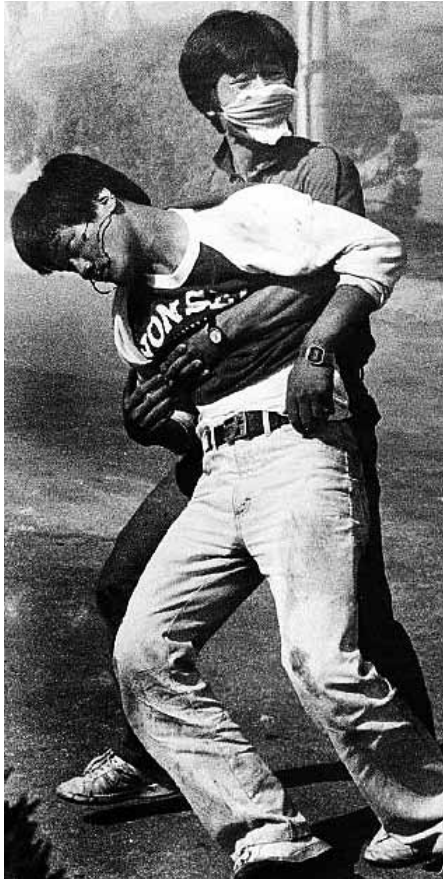
광주·전남경찰청이 그동안 보관해 왔던 최루탄을 경찰서 및 기동부대 운영지침상 최소 수량만 남기고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998년 이른바 '최루탄 무사용 선언' 이후 지난 2010년 최루탄을 소량 폐기한 적은 있지만, 대규모 폐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5월 말까지 관할 경찰서 5곳(방범순찰대 4곳)과 기동부대 3곳에서 보관중인 최루탄 가운데 5000여발을 폐기할 예정이다.

운영지침상 남겨놓기로 한 나머지 4000여발도 최소 필요량만 놔두고 순차적으로 폐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도 5월말까지 21개 경찰서와 6개 기동부대에 보관중인 최루탄 중 2만여발을 폐기하고, 최소 수



1987년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 열 열사. 아래는 최루탄을 쓰는 경찰.

량인 3000여발만 남겨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 기동부대와 30개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최루탄 가운데 3만5000여발을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오는 9월경 최루탄을 폐기할 계획이다.

최소 필요량은 경찰관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기동부대는 KP1 200발, KP3 100발, KP5 100발 등 총 400발, 경찰관서는 100발로 정해져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기동부대 운영지침에 따른 최소 필요량만 남기고 나머지 최루탄을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앞으로 최루탄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조치"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남겨놓은 소량의 최루탄도 순차적으로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실제 경찰은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1998년 한해 동안 노동절(5월1일) 집회와 만도기계 노사분규 현장(9월3일) 등 단 2차례 3000여발의 최루탄을 사용한 이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값 나가보여' 철도시설물 뜯어낸 고물상 종업원...대형사고 날뻔

선로전환기 감시장치 등 파손
광주철도경찰대, 20대 입건

광주에서 철도시설물을 뜯어낸 고물로 판매하려던 고물상 종업원이 붙잡혔다. 시설물 파손으로 자칫 탈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철도시설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도교통부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철도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고물상 종업원 이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5분께 광주

시 광산구 소촌동 철도 선로 방음벽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히팅(난방) 장치, 선로전환기 감시장치, 선로전환기 덮개 등 철도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팅 장치는 선로 결빙을 방지하고, 선로전환기는 열차가 운행하는 방향으로 선로를 전환해주는 장치다. 선로전환기 덮개는 선로전환기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들 장치는 파손이나 훼손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탈선,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시 장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직원들이 철도를 점검하던 중 파손된 사

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철도 시설물이 값이 나갈 것으로 보여 훔쳐서 고물로 팔려고 했다. 그런데 파손하고 보니 팔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대로 두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선로 무단 침입·통행은 철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철도범죄 신고전화(1588-7722) 또는 철도범죄 신고 앱(철도경찰 범죄신고)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북 삼례 나리슈퍼·김학의 성접대 사건 등 3건 정식조사

검찰과거사위, 대검에 권고

검찰이 전북 삼례 나리슈퍼 강도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정식 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전북 삼례 나리슈퍼 사건

(1999년), 유우성씨 사건(2012년),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3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과거사위 요구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

첩 사건(2008년) 등 기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삼례 나리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리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유희머니(당시 77세)를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처벌받았던 3명은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로 각각 징역 4~6년형을 살았으며, 이들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자전거길 컨테이너 문에 광"

부상 당한 시민, 처벌 진정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라이딩을 즐기던 시민이 갑자기 열린 컨테이너 문에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문을 열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다치게 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서가 23일 접수됐다.

진정을 낸 강모(37)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광주천변에서 승선보로 이어지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다가 순간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바람에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강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완도해양경찰 소속 함정들이 24일 완도군 앞바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2차 해상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완도해양경찰 제공>

장례식장서 거액 도박 4명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장례식장에서 1000여만원의 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이모(40)씨 등 4명을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3일 밤 9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장례식장 8호실에서 1091만원의 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다.

이씨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빈집 털다 집주인에 막 걸렸네...수백m 추격 끝 '달미'



○...빈집을 털다 집주인과 마주친 30대 남성이 수백m를 도망갔으나, 끝까지 추격한 집주인에게 달미를 잡히는 바람에 결국 경찰사형.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주모(35)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단독주택 2층에서 저급등에

들어있던 현금 2450원을 훔치다 때마침 귀가하던 집주인 A(49)씨에게 들켰다는 것.

○...자신이 머물고 있던 인근 모텔까지 400여m를 도망간 주씨는 모텔 앞까지 추격한 집주인 A씨의 경찰신고로 붙잡혔는데, 주씨는 경찰에서 "생탈피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신축 원룸매매

◎ 전대 정문 2분

◎ 총 4층건물

(원룸 13개, 투룸6개)
4층(안집)-최고급시설

보7천만 월수익 700만
◆ 매가 : 13억 5천 ◆
(용 3억5천 가능)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매가 8억3천
- ② 산정공원바로앞(코너)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최고급주택)월세 550만 ▶매가 9억5천만
-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건물 매매

월산동 3층 건물

월수익 900만

◆ 매가 : 22억 ◆
(용 1억 보 1억4천)

- ① 상무지구 6층 상가
월 수익 50만 ▶매가 8천만

- ② 남구 진월동(4층 상가건물)▶매가 5억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도(오피스텔 개발부지)
토지 53평 건물 222평(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9억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 | |
|---|---|
| 1)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 71평, 건 179평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 5) 북구 문흥동 (3층원룸)
토 57평, 건 101평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3억6천 |
| 2) 서구 화정동 (5층 상가빌딩)
토 125평, 건 460평
광주 새우리병원 앞 (코너)
▶감평가 13억2천 → 최저가 13억2천 | 6) 동구 학동 (3층원룸)
토 81평, 건 101평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3천 |
| 3)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평가 6억 → 최저가 6억 | 7) 상무지구 새정아울렛 (3층)
감평가 3억 → 최저가 2억1천 |
| 4) 화산 도곡면(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예상)
▶감평가 5억3천 → 최저가 5억3천 | 8)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 | 9)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
| | 10)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평가 14억6천 → 최저가 14억6천 |
| | 11) 서구 매월동 (정례식장)
토 3,302평, 건 3,955평
감평가 2백70억 → 최저가 190억 |

A.P.T 주택 토지,기타

- | | | |
|---|---|---|
| ① 서구 용봉동 주안아파트 02평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6천 | ⑥ 북구 용봉동 주택
토지 30평 건물 17평
감평가 9천 → 최저가 9천 | ⑩ 광산구 월산동 토지 1999평, 건물 240평
감평가 80억 → 최저가 48억 |
| ② 서구 내동 배동주안아파트04평
감평가 2억4천 → 최저가 1억5천 | ⑦ 광산구 월곡동 (중주책)
토지 89평 건물 73평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2억5천 | ⑪ 광산구 월곡동 (공정 토지) 2200평 건물 1250평
감평가 60억 → 최저가 45억 |
| ③ 서구 화정동 마에아파트 02평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6천 | ⑧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2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 ⑫ 서구 용봉동 (농지) 1300평
감평가 60억 → 최저가 45억 |
| ④ 광산구 신정동 신북동 05평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4천 | ⑨ 북구 용봉동 토지 37평 건물 20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 ⑬ 광산구 비호동 (농지) 13,000평
감평가 190억 → 최저가 45억 |
| ⑤ 동구 용봉동 관아아파트 02평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6천 | | ⑭ 서구 용봉동 (농지) 1300평
감평가 60억 → 최저가 45억 |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5월초 개강)

-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 ③ 무료반운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실분
-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